"중간고사 꼭 추석 직후에 봐야 하나요"

중고생·학부모 "성묘·친척집도 못갈판…" 하소연

"많이 쉬면 리듬 흐트러진다" 성적 지상주의 문제

고등학생 남매를 둔 김모(48·광주시 서구)씨는 추석을 앞두고 고민에 빠졌다.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가 추석 연휴 다음주(10월 7~9일)에 중간고사를 치르기 때문이다.

김씨는 "시골(해남)에 홀로 계시는 어머니가 손자, 손녀를 많이 보고 싶어하는 데, 아이들이 중간 고사 때문에 갈 수 없다고 한다"면서 "이번 명절에는 혼자서만 고향에 내려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중학교 2학년 아들을 둔 주부 정모(41·광주 동구)씨도 고민은 마찬가지다. 역시 명절 연휴 다음 주부터 중간고사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종갓집 맏며느리인 김씨는 명절이면 친·인척들이 집을 자주 방문하는 탓에 중간 고사를 앞둔 아들을 독서실에 보내기로 했다.

광주지역 대부분의 중·고교들이 추석 명절 연휴 다음주부터 중간고사를 실시할 계획이어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만이 높다. 내신성적이 대학 진학의 중요 잣대가 되는 현실에서 중간고사 공부를 포기하고,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갈 수는 없기 때문이다.

21일 광주시교육청과 일선 중·고교에 따르면 광주지역에서 대부분의 중·고교가 추석 연휴(10월 2~4일) 바로 다음주인 10월 5일부터 9일 사이에 중간고사를 치를 예정이다.

일선 학교에서 이처럼 추석 연휴 직후에 중간고사를 치르는 것은 10월에 소풍과 전국 학력 평가 등 각종 행사가 많은 탓도 있지만, 학생들에게 긴 휴식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성적 지상주의'가 깔려있다.

다음달 7~9일에 중간고사를 치르기로 한 광주 모 고교 교장은 "10월은 행사가 많아 시험 일정을 잡기가 힘들고, 추석 전에는 배운 부분이 별로 없어 시험을 치르기에 어려운 면이 있다"면서도 "추석 연휴내내 쉬게 되면 학생들의 공부 감각이 떨어지는 만큼 대부분의 학교들이 의도적으로 추석 직후에 중간고사를 치르기도 한다"고 말했다.

대학 진학률과 전국 단위 시험 성적 발표 등을 통해 학교 서열화를 조장하고 있는 현실에서 학생들에게 명절 휴식을 주는 것은 학교의 성적 하락과도 직결된다는 게 학교 교장들의 논리다.

하지만, 학생과 학부모들은 명절까지 빼앗는 학교의 시험 일정이 너무하다는 반응이다. 한 고교생은 "할머니, 할아버지도 보고 싶고 친척형들도 만나고 싶은데 시험 때문에 나만 시골에 못가게 됐다"면서 "명절만이라도 마음 편하게 지냈으면 한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한 학부모는 "시험 일정은 학교장이 잡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교육청이 아이들의 인성교육을 위해서라도 일정 조정 등 지침을 내려줬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 관계자는 "중간고사 일정은 학교장 재량"이라면서 "이 같은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교장들에게 전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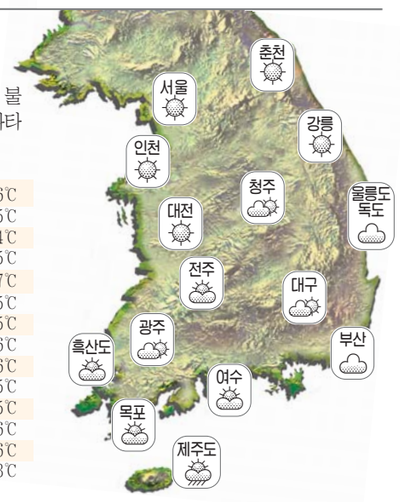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6시 20분 해짐 18시 30분 달뜸 09시 57분 달짐 20시 13분

가을바람 타고 '황사'

흐린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불겠으며 오후부터 황사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광 주	흐린뒤 맑음	18/26℃
목 포	구름많음	17/25℃
여 수	구름많음	19/24℃
완 도	구름많음	18/25℃
구 례	흐린뒤 맑음	16/27℃
해 남	구름많음	17/25℃
장 흥	구름많음	17/25℃
고 흥	구름많음	16/26℃
순 천	구름많음	17/26℃
영 광	구름많음	16/25℃
진 도	구름많음	18/25℃
전 주	구름많음	16/26℃
남 원	구름많음	15/26℃
흑산도	구름많음	19/23℃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0.5~0.5m
먼바다	북서~북	0.5~1.0m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	1.0~1.5m
먼바다	북동~동	1.0~2.0m

자외선지수	식중독지수	불쾌지수
보통	경고	보통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북~북동	0.5~0.5m
먼바다	북~북동	0.5~1.0m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	1.0~1.5m
먼바다	북동~동	1.0~2.0m

	밀물	썰물
목포	04:04 16:44	09:11 21:39
여수	11:05 22:57	04:30 17:02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23(수)	24(목)	25(금)	26(토)	27(일)	28(월)
날 씨						
최저/최고	17/28	17/28	17/28	17/28	18/26	18/25

'학교폭력' 발생 비율

광주·전남 전국 최고

광주·전남지역 일선 학교의 학교폭력 발생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교육과학기술부가 한나라당 김선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지역 초등학교의 학생수 대비 학교폭력 발생률은 0.016%으로 대전 0.01%, 대구 0.008%, 부산 0.007%보다 높았다. 중학교(7만5천460명) 역시 광주가 0.736%로 가장 높았으며 부산 0.477%, 서울 0.382%, 전북 0.318% 순이었다.

고등학교 학생폭력 발생률은 전남이 0.248%로 제주 0.233%, 강원 0.193%, 충북 0.154% 등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심의한 건수를 기준으로 했지만, 상당수 학교가 외부 공개를 꺼려 심의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신뢰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 일선 학교의 심의 기준도 제각각이어서 객관적이고 명확한 잣대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평화공원 표지석 제막 광주시 서구 치평동 광주시청 맞은편에 조성된 '평화공원' 제막식이 21일 오후 공원 내 입석대 폭포 앞에서 박광태 광주시장과 구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기존 대리석 광장에 생태 숲을 조성한 광주시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업적을 기려 공원의 명칭을 '평화공원'으로 확정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오늘 차 없는 날

'카-프리' 1,200명 참여

광주시와 광주시그린스타트네트워크가 공동추진하는 '세계 차 없는 날 행사'가 22일 상무지구 일대와 광주시청에서 열린다.

이날 오전 9시30분 상무역에서 자전거 퍼레이드, 오전 10시부터 시청 앞에서 이색자전거 전시와 자전거묘기가 식전행사로 열린다. 오전 10시30분부터 열리는 기념행사에서는 기후변화사진공모전 시상식과 함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카-프리(Car-Free) 선언에 참여한 차량 수량과 온실가스 감축 예상량이 발표된다.

21일 오후 5시 현재 카-프리(Car-Free) 선언에 참가한 차량 운전자는 모두 1천200여 명으로 파악됐다. /윤현석기자 chadol@

"송편 만들때 솔잎 가려 쓰세요"

병해충 방제 주사

2년까지 농약성분

병해충을 막기 위해 소나무에 농약을 주사한 지역이 전국적으로 10만ha에 달해, 추석을 앞두고 송편 빚는데 사용할 소나무 채취에 주의가 요구된다.

21일 산림청에 따르면 최근 수년 동안 기승을 부리는 솔잎혹파리, 솔껍질깍지벌레 등과 같은 소나무 병해충 방제를 위해 지난 2년간 총 9만5천여의ha 산림에 방제용 약제인 '포스파미돈 액제'를 주사했다. 포스파미돈 액제는 솔잎혹파리 등 소나무의 병해충 방제에 쓰이는 고독성 농약이며, 주사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솔잎에는 농약성분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지리산 탈진·월출산 골절 사고 많다

국립공원관리공단 국회 제출 자료

2007년부터 올 8월까지 지리산에서는 총 395건의 안전사고가 발생, 이로 인해 8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대해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국립공원 안전사고 현황'에 따르면 지리산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주로 탈진·경련(132명), 조난(41명), 골절이나 염좌 등 부상(114명)에 의한 것이었다. 사망원인은 익사(2명), 자연재해(1명), 고혈압이나 심장질환을 비롯한 지병(5명) 등이다.

바위가 많은 월출산국립공원에서도 최근 3년 동안 68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해 3명이 숨졌으며, 골절이나 염좌 등 부상을 입은 탐방객이 33명에 달했다. 또 고혈압 등 지병을 앓던 탐방객들의 무리한 산행이 사망원인으로 지목됐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광주지하철 10월부터

전면 우측통행

다음달부터 광주지하철 모든 역의 시설물과 시스템을 우측통행 방식으로 전면 전환된다.

21일 광주도시철도공사에 따르면 정부의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에 따라 광주 지하철 내 42대의 에스컬레이터 운행방향이 좌측통행에서 우측통행 방식으로 바꾸고, 각 역 자원봉사자 및 사회봉사요원 1천여 명을 투입해 홍보물 배포 등 캠페인을 벌인다.

공사는 문화전당역과 금남로4가역에는 우측통행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을 설치중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